

한국과 중국의 건설 클레임 비교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Construction Claims in Korea and China

장려위* 이윤선** 김재준***
Jang, Ryu-Wee Lee, Yoon-Sun Kim, Jae-Jun

요약

경제의 세계화와 지속적인 국제건설시장 개방으로 인해 많은 국가들이 더욱더 치열해지는 국내의 건설 시장의 경쟁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각 나라들도 해외시장에서 여러 가지 기술과 도구를 통해 최대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 간의 계약에서 클레임의 발생은 계약자들에게 발전의 걸림돌이 되었고 많은 손실과 피해를 초래해 왔다. 이에 따라서 건설 클레임의 관리는 복잡한 경제 활동 중 제일 중요한 도전이라고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미국과 프랑스 같은 선진국들이 계약관리와 클레임에 대한 방법론들을 통해서 많은 발전을 취득해 온 반면에 한국과 중국 같은 아시아 국가들은 선진국에 비해 아직 큰 격차가 존재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건설 클레임을 비교·분석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키워드: 건설 클레임, 법체계, 중국, 한국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올해로 개혁개방 30주년을 맞은 중국은 이번 베이징 올림픽을 준비하기 위해 국가체육장 등 같은 주경기장과 많은 부대시설을 신축으로 인하여 중국 부동산시장을 적극적으로 개발했다. 또한 올림픽 이후에도 2010년 상하이 세계무역박람회, 국가 차원의 대규모 프로젝트인 서부대개발 계획과 도시화 계획이 남아있어 중국의 부동산 및 건설 시장에 세계 유수 건설기업의 관심이 여전히 집중되고 있다.

한국의 건설업체는 지리적 인접성과 장구한 중·한 교류의 역사를 통하여 형성해 온 문화적 배경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타 외국 기업들에 비해 건설산업의 특성인 하도급비용과 전자재 확보 등, 시장 진출 및 개척에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다. 1992년 중·한 수교 이후 16년간 양국간 협력은 과거 수천년의 성과를 능가할 정도로 정치, 경제, 사

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협력이 확산했다.

최근 한국 국내업체간 경쟁 심화와 건설 SOC 예산의 상대적 감소로 인해 중동, 동남아 및 중국 등의 주요 해외건설시장 진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사실은 진출업체 중에 대규모 업체도 있지만 소규모 업체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형 건설회사의 경우 기존에 많은 해외 건설 경험이 있기 때문에 건설 클레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지만, 해외건설경험이 전무한 중소건설업체의 경우 건설 클레임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되고 있다. 이에 중소기업들이 많은 불필요한 손실을 쉽게 초래하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불필요한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건설사업 계약관리체계의 혁신과 클레임의 효율적인 예방 및 처리방안 모색이 절실한 시점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중국의 유리한 조건과 잠재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양국 간의 건설 클레임을 비교를 통해서 제도적인 차이점을 도출함으로써 한국 건설기업의 중국 내 거대한 건설업 시장 참여를 위한 기본 연구 자료를 도출하는 것이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프로젝트 건설과정 중 발생되는 클레임에 한정하여 건설 클레임에 관한 법체계, 분류 및 처리 절차를 중심으로 비교·분석을 통해 한국과 중국의

* 일반회원, 한양대학교 건축환경공학과 석사과정
trybest_99@hotmail.com

** 정회원, 한양대학교 건축환경공학과 계약교수, 공학박사
yoonsunlee@hanyang.ac.kr

*** 종신회원, 한양대학교 건축환경공학과 정교수, 공학박사
jjkim@hanyang.ac.kr

본 연구는 과학기술부 우수연구센터육성사업인 한양대학교 친환경건축 연구센터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R11-2005-056-03001)

건설 클레임의 현황을 파악하고 차이점을 도출한다.

로기준법 등이 있다.

2 기존 클레임 연구 고찰

한국과 중국 건설 클레임에 관한 연구들을 고찰하여 보면 다음 표1과 같다.

표 1. 건설 클레임 관련 한국과 중국 연구 현황

연구자	연도	연구 내용
김문한	1994	건설공사 공기 지연 클레임 분석방법에 관한 연구
이재섭	1998	국내 건설사업의 클레임 동향 분석
백준홍	2003	건설 클레임의 예측 모델에 관한 연구
成 虎	1999	建筑工程合同管理与索赔
文艶芳	2002	實現施工索赔的有效途徑
劉 怡	2006	我國現階段的建筑工程索赔研究

3. 한국과 중국의 건설 계약관리 비교분석

3.1 한국적용 계약관련법규

한국 법령은 1951년에 일제시대 구회계법과 미군의 회계 제도를 적용한 재정법(1951~1961)이 제정되었으며 공사계약은 일반 경쟁원칙에 의해 시행되었고, 그 후 재정법은 1962년 국가재건 최고회의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실천을 위해 예산회계법을 제정함으로써 폐지되었다.

이러한 예산회계법도 1995년 정부조달 협정이 체결 후 분산되어 있는 법을 하나로 묶고, 계약의 편리성 및 개방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제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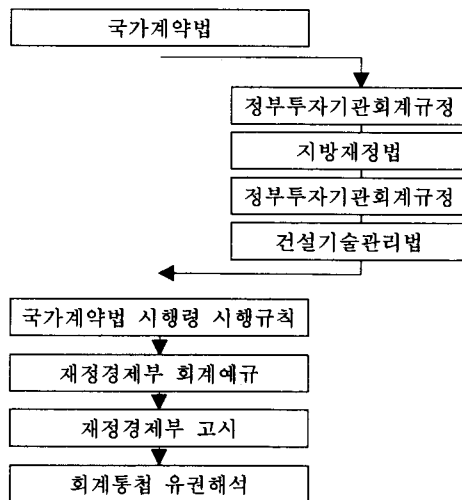


그림 1. 한국 계약관련 국내법령관계

현재 한국의 건설공사 관련 계약문서로 적용되고 있는 법규들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예관법률, 공사계약일반 조건,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근

3.2 중국적용 계약관련법규

중국에서 모든 건설공사계약은 법률을 바탕으로 작성하여 여러 가지 행정법규와 지방법규를 포함하고 건설영역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의 법률과 법규(세법, 회계법, 외환관 제법, 회사법등)를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완전한 법률체계이다. 다음은 이 법률체계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1) 법률

여기 언급했던 법률은 전국인민대표대회(全國人民代表大會) 및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全國人民代表大會常務委員會)의 심의를 통과하여 공포되는 법류들을 확정한다. 예를 들면, 헌법¹⁾, 민법, 민사소송법, 건축법, 계약법, 중재법, 문물보호법, 토지관리법, 회계법, 입찰법 등이 있다.

2) 행정법규

행정법규란, 중국의 최고 행정기관인 국무원(國務院)에서는 헌법과 기타 법률에 근거하여 제정한 규범성문건을 말한다. 예를 들면, 건축설치공사도급계약조항, 건설항목환경 보호방법, 건설공사조사설계계약조항, 건설공약품질관리조항 등이 있다.

3) 규정

규장(規章)은 행정규범으로서, 제정기관에 따라 부문규장(部門規章)과 지방정부규장(地方政府規章)으로 나눌 수 있다. 부문규장(部門規章)은 국무원의 각 부문 및 그 직속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직권 범위 내에서 제정한 것이고, 지방정부규장(地方政府規章)은 성(省), 자치구(自治區), 직할시(直轄市)의 인민정부 및 성, 자치구, 인민정부가 소재한 지역의 시와 국무원에서 비준한 비교적 규모가 큰 시의 인민정부가 제정한 것이다. 예를 들면, 건설공사시공계약관리방법, 공사건설시공입찰관리방법, 건축시장관리규정, 건축업기업자질관리규정, 건설감리시행규정 등이 있다.

4) 지방성법규과 지방정부규장

지방성법규와 지방정부규장은 법률과 행정법규의 구체화로 인식하면 된다. 예를 들면, 지방의 건축시장관리방법, 입찰관리방법 등이 있다.

중국법의 효력은 헌법, 법률, 행정법규, 지방성법규, 규장의 순이다. 하급(예: 지방, 지방정부)의 법규와 규장은 상급의 법률과 행정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상호보완의 효력을 갖는 동일한 법률체계를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법률체계를 배경으로 구체적인 계약에 저촉되지 않은 한 세부 상세 규정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1) 중국헌법은 이후 3차례의 개정을 거쳤다. 즉 1988년 4월 12일, 1993년 3월 29일, 1999년 3월 15일 각각 개정되었다. 개정내용의 대부분은 경제정책과 관련된 내용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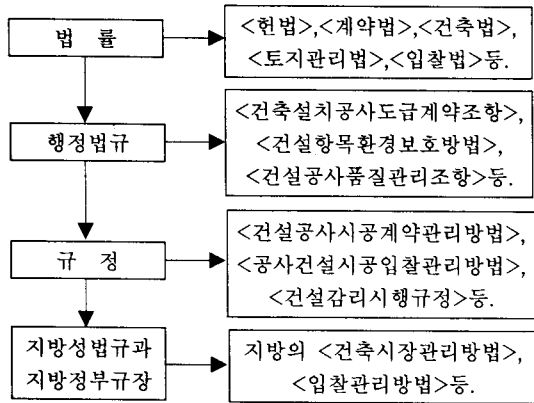


그림 2. 중국 계약관련 국내법령관계

한국과 중국의 계약관련 법규에 대해 분석을 통해 양국 간의 계약적인 차이점을 도출하였다. 위에 분석했듯이 중국은 한국과 다르게 지역적 조건으로 인해 엄청난 경제와 정책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건설 시장에 진출할 때 큰 손실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중국건설시장 관련 법체계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상세한 사전조사가 수행되어야 한다.

4. 한국과 중국의 클레임 비교분석

4.1 클레임의 정의 및 분류

중국의 건설사업에 있어서 클레임이란 "계약 이행 중 자신의 과실이 아니고 상대방의 과실로 실제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경제적 보상과 (혹은) 공기수연 요구를 제출함"을 의미하고 있다. 반면에 한국의 건설사업에 있어서 클레임이란 "사업주체 또는 건설업체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내용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조치 등에 의하여 계약 상대방에게 경제적 손실, 시간적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 이에 보상을 요구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표 2. 중국 건설 클레임의 분류

클레임 분류	세부 내용
위약클레임	발주자가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변경클레임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불가항력클레임	지진, 전쟁, 화재, 폭동 등의 경우.
도의클레임	시장과도 경제이나 도급자가 저가 낙찰됨으로써 시공 중 큰 손실을 입을 때 발주자가 도급자한테 보상을 주는 경우.

중국에서 건설클레임에 대한 분류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만 일반적으로 "위약클레임", "변경클레임", "불가항력클레임",

2) 중국(1999), <건설공사시공계약(시방원본)>(GF-1999-0201)
3) 남진권(2000), <건설공사의 클레임과 분쟁>

"도의클레임" 등 크게 4개의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표2 참조).

국내에서 실제 나타난 건설클레임 사례를 토대로 볼 때 계약문서에 근거한 클레임, 계약위반클레임, 법령에 규정된 의무위반클레임, 호의적인 클레임 정도로 구분하고 있다(표 3 참조).

표 3. 한국 건설 클레임 분류

클레임 분류	세부 내용
계약문서에 근거한 클레임	건설현장에 발생하는 대부분의 클레임은 계약문서에 근거한 클레임이다.
계약위반클레임	계약위반클레임은 상대방에 의한 계약조건의 위반으로 인해 손해를 말한다.
법령상의 의무위반클레임	일반적으로 법령은 건설계약당사자들에게 책임과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다.
호의적인 클레임	발주자는 공사계약의 특수성이나 계약당사자 간의 이해관계 등을 고려하여 용하는 클레임을 말한다.

한국과 중국에서 일반적으로 분류되는 클레임의 항목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러나 두 나라 모두 건설클레임의 발생 원인이나 분류기준이 다양하므로 확립적으로 분류하여 비교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4.2 중국에 클레임 처리 절차

1999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건설공사 시공계약에 따라 중국의 건설클레임처리절차는 그림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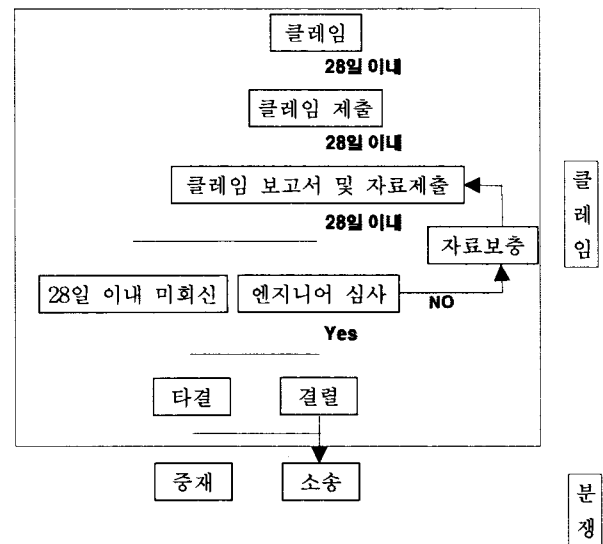


그림 3. 중국의 클레임 처리절차

4.3 한국에 클레임 처리 절차

한국 국내에서 클레임은 계약적 조건 또는 발생사유에 따라 대처방법이 달라질 있으나 일반적인 절차는 그림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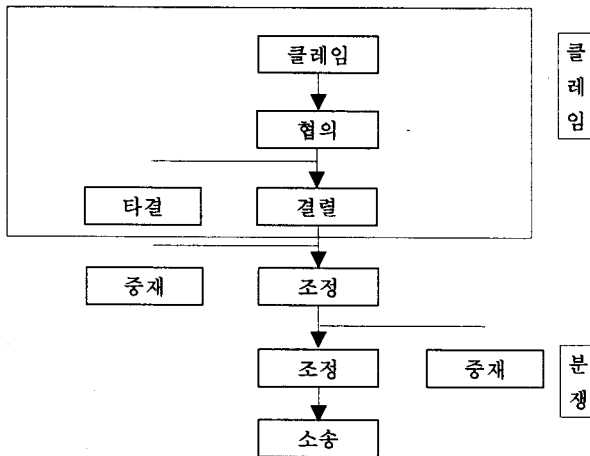


그림 4. 한국의 클레임 처리절차

현재 각각의 나라별 산업구조의 변화, 세계화, 개방화와 함께 건설업계의 국내외 진출뿐만 아니라 해외건설업계의 국내진출기회도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를 대비하기 위해 건설클레임 처리절차가 세계기준화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림 3. 과 그림 4.를 비교해 보면 중국은 한국과 다르게 클레임이 발생하는 리스크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구체적으로 시공자의 클레임 제기시간과 엔지니어의 클레임 심사시간을 명확하게 제시하였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한·중 양국 건설 클레임 비교·분석을 통해 중국 건설 클레임이 한국과 차이점을 도출하여 중국 건설클레임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보나 지식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초 연구 자료를 제공하고 자 한다.

건설클레임은 건설 산업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며, 건설시장의 세계화, 개방화가 진행될수록 클레임에 대한 인식전화, 철저한 계약관리 및 정부의 클레임관련 제도 개선이 더욱 필요할 것이다. 향후, 이 연구를 바탕으로 사례분석을 통한 중국과 한국의 클레임에 대해 계약적 차이점과 부족함을 도출하여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成 虎., "建筑工程合同管理与索赔", 东南大学土木工程學院, 1999
2. "建设工程施工合同(示范文本)(GF-1999-0201)", 中華人民共和國, 1999
3. 劉惠明, "施工索赔的現狀及對策", 西安建筑科技大学, 2007
4. 劉 怡, 王月明, "我國現階段的建筑工程索赔研究", 四川建筑科學研究, 2006
5. 侯化坤, "國際工程合同管理与索赔", 西安建筑科技大学, 2004
5. 정우영, 엄신조, "건설공사중 발생하는 클레임 관리 프로세스 모델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제25권, 제1호, 2005, pp. 185-188
6. 윤철성, "국내 건설공사 클레임 사례를 기준한 위험요인 및 대응전략 도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19권 제9호, 2003
7. 이상훈, 양창환, "FIDIC제정 공사계약조건과 공사계약일반조건의 비교 연구", 한국건설관리학회, 2005, pp. 211-215
8. 이상범, "건설경영공학", 기문당, 2004, pp. 505-526
9. "지방 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행정안전부예규, 제138호, 2008
10. 송용식, 오영인, "건설클레임의 이해와 대처요령", 대한주택공사 건설본부, 1997
11. 백준홍, "건설 계약관리와 클레임 해결",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1
12. 윤대중, 윤준선, "건설 클레임의 예측모델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제23권 제1호, 2003
13. 이재섭, "국내 건설사업의 클레임 동향 분석", 한국건설사업연구원, 1998

Abstract

As the further development of economic globalization and the continued opening up of international construction markets, many of the countries are faced with more and more severe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nstruction market competition. It has been a focus question of all the countries and regions that how to achieve maximal profit in the international construction market, but construction claims are growing into a stumbling block to the project participants to reach their expected goals. Thus, the management of construction claims is considered as the greatest challenge that is facing constructors in today's vacillating business environment. Recently, many of the methodologies have been developed for the construction claims to overcome these current problems, but compared to the developed countries there is still a big gap in some Asian countries, such as China and Korea. This paper attempted to investigate and compare the project claims system in these two countries to figure out the common points and differences

Keywords : Construction Claims, Legal System, China, Korea